

[사회]

병원 마약류 관리 '엉망'

광주·전남 의료진 무단 투약·분실 등 잇따라

지난해 153명 입건

병의원 내 금고 등에 보관해야 할 마약류 약품이 의사나 간호사 등의료진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약 분실 또는 의료진에 의한 직접 투약 등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마약관련 사건 및 분실사고로 인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153명. 2005년 85명, 2006년 8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광산경찰청은 지난 1월 병원에

서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을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B(24)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광산구 H외과에서 당직근무 도중 마취제나 진통제 등으로 쓰이는 마약성 약물인 염산페치딘, 도미검주(주성분 미다졸람), 프로포폴을 자신의 팔뚝 등에 60여차례 투약해온 혐의다. 지난해 10월26일 순천시 조례동 O 동물병원에서도 이 병원 원장인 김모(38)씨 등 2명이 약 7개월간 동물 마취제 케타민 등을 사용한 후 기록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보관대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불구속 입

건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하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광주 대 대학병원 마취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취약들이 소량이고 한번 사용 후 남더라도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우며 대부분의 병원이 사용 기록작성이나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대 대학병원 마취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취약들이 소량이고 한번 사용 후 남더라도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우며 대부분의 병원이 사용 기록작성이나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외국인 보호소 즉각 폐쇄 인권보호 현장 활용해야”

여수 화재 참사 1주년 추모제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 1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추모제를 갖고 화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 등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추모제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고 이곳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추모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는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외국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화재 참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년 전인 지난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이동학대 논란’ 前 지도원 4명 복직 결정

전남지방노동위

이동학대 논란으로 해고된 사회복지법인 ‘성빈여사’의 전 생활지도원들 중 일부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1일 심판위원회를 열고 원성을 폭했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성빈여사’ 전 생활지도원 10명이 ‘성빈여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10명 중 4명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노동위는 복직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인 이동학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사직 후 3개월로 명시된 이익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 생활지도원들은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형식적인 이유로 6명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뜻을 내비쳤다.

‘성빈여사’ 측은 노동위의 판정을 전례하고 일단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파악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교장·부교수는 서기관급”

사립 교장 임용 관련 판단

별도의 직급이 없는 교육공무원은 초·중·고 교장이나 대학의 부교수가 돼야 ‘서기관(4급) 상당 이상’이라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용 결정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중·고의 경우 교장, 대학은 부교수 이상 교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각 학교법인에 통보했

다고 11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제22조)은 학교법인 임원 결정대상의 하나로 ‘4급 상당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제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현직 교장이 임기도 중 혹은 퇴직 직후에도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 터였다. /연남스



산불 예방 불지르기

광주시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11일 겨울철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해 광산구 서봉마을 일대 논두렁에 불을 지른 뒤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설 연휴 소통은 원활, 양심은 불량

호남지역 고속도로 쓰레기 18.5t 이나

설 연휴 호남 지역의 고속도로 소통 상황은 좋아졌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은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설 연휴 기간인 6~10일 호남·서해안·88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모두 18.5t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수거된 14t에 비해 4.5t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선 별로는 호남고속도로가 7.3t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고속도로 3.3t, 88고속도로 2.8t 등이었다.

도로공사 호남본부 관계자는 “차량 8대를 동원해 매일 3차례씩 쓰레기를 주웠지만 귀성·귀경 차량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 같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발이 '꽁꽁' 2월 12일 (음 1월 6일) 전국날씨

구름 많고 아침부터 한두차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	한두차례 눈	-2~0℃
목포	한두차례 눈	-1~1℃
여수	구름 조금	-2~-1℃
순천	구름 많음	-1~0℃
해운대	구름 많음	-5~0℃
남해	구름 많음	-2~0℃
진남ون	구름 조금	-2~1℃
순천	구름 많음	-5~0℃
영광	한두차례 눈	-4~-1℃
영암	한두차례 눈	-2~0℃
영진	한두차례 눈	-7~-1℃
영암	한두차례 눈	-1~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 05:35 썰물 < 10:42
여수 밀물 < 00:14 썰물 < 06:07

▲해돋이 07:23 ▲해질 18:11 ▲달돋이 09:53 ▲달질 23:50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씨						
최저/최고	-4/2	-4/4	-3/4	-3/5	-2/6	-3/6

광주·전남 기온 급강하

12, 13일 이동중인 광주·전남 지역에는 한 두차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상 적설량은 1~3cm 정도로 많지는 않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아침부터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에

보했다. 12일 광주·전남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하 1도로 다소 추웠다. 해상에서는 서해남부전해상에서 파도가 2~4m로 높게 일 전망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노사문제 전임 공무원 광주시 첫 채용키로

광주시가 처음으로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임 공무원을 채용한다. 시는 11일 “노사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사현안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7급 상당)을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체행 정국에 공무원단체 담당 부서를 두고 시청 직원 등과의 노사 문제를 처리해 왔으나,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전임 직원을 채용키로 했다.

전임 공무원의 채용 조건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노동 및 노사관계 등 노무업무 분야 학사·석사 학위 취득자, 7년 이상 노동 및 노사관계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는 인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목포 통근열차 운행 시간 일부 조정

코레일 광주지사(지사장 백종찬)는 오는 15일부터 광주~목포간 통근 열차의 운행시간을 일부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근시간대 광주에서 목포로 출발하는 무궁화호 1981호 열차의 광주역 출발시각을 기존 오전 7시 5분에서 10분 앞당긴 오전 6시55분으로 조정했다. 광주에서 목포를 중간에 운행하는 1983호 열차도 25분 앞당겨 오후 3시15분으로 조정했다.

또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무궁화호 1984호 열차의 목포역 출발시각은 기존보다 50분 빠른 오후 6시 15분으로 앞당겼으며, 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40분 열차를 추가로 배치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대비반 2명 합격(전면합격) - 100% 합격률 보장
합격 3월 3일 전까지
합격 시 300만원 장학금 지급
합격 시 300만원 장학금 지급
합격 시 300만원 장학금 지급

바이오싱크케어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권위성!!

건물 매각
100% 성공률 보장
100% 성공률 보장
100% 성공률 보장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권위성!!